

광주시, 겨울철 시민생활 폭넓게 살핀다

4개 분야 종합대책 수립

노인 돌봄·방과후 급식 지원

물가 안정·나눔문화 활성화도

광주시는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함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시민생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민생활 종합대책은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겨울 나기 ▲서민물가 안정 및 식품위생 관리 강화 ▲폭설·한파 대비 재난안전 관리 ▲나눔문화 참여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운영된다.

우선 생활고를 겪고 있는 비수급 빈곤 위기가정을 집중 발굴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독거노인 안전 확인을 위해 돌봄 서비

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며 노숙인 보호 차원에서 시설점검 및 긴급지원을 실시한다. 방학동안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1만6716명에 대해서는 방학 중 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취약계층의 경우 의료기관을 지정해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또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차상위계층 67세대, 사회복지시설 75곳 등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한편 수급권자,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소년소녀가장 가정 등에는 연탄쿠폰, 등유쿠폰, 전자바우처 등을 공급한다.

재능기부센터, 전문건설협회, 건축자재거리 상인회,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행복한 목수 봉사단'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내년 1월부터 다시 시작된다.

물가안정 대책도 폭넓게 마련됐다. 김장

철과 설 명절에는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김장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배달 및 호프전문업소 196곳에 대한 민관 합동 위생점검 등을 실시한다.

재난안전 관리 대책으로는 101곳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자연재난 종합상황 관리체계 구축, 재난발생 시 24시간 상황 유지, 강설예보 시 제설자재 및 장비·인력 활용,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근무체계 가동, 제설작업 시행, 이면·횡단 보도 눈치우기 등을 제시했다.

시는 수도 동과 방지를 위한 수도관 및 계량기 사전점검, 동파 예방요령 홍보물 배포, 긴급 민원처리반·비상 급수반 편성·운영 등에도 나선다. 농축산시설의 안전을 위해 시설 정비 및 보강을 추진하고 AI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화재예방 특별점검, 대시민 안전교육 등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시민들이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언론기관과 함께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을 펼치고, 공직자들의 복지시설 위문 및 자율봉사활동도 벌인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겨울나기가 힘든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등을 보살피는 구체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동절기에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따뜻함이 느껴질 수 있도록 시민생활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독감 예방 접종 서두르세요”

광주시, 59개월 이하 어린이·65세 이상 무료접종

광주시는 지난 1일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인플루엔자 감시 결과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가 전국 7.7명(광주 2.9명)으로 유행기준인 6.6명을 초과했다.

시는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와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까지 무료접종을 지원중이다.

또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무료접종 대상자 뿐 아니라 임신부, 만성질환자, 50~64세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과 건강한 청소년,

성인까지 모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됐지만 보통 다음 해 봄까지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대상자들은 서둘러 접종을 받아야 한다"며 "집단생활로 인플루엔자 유행에 취약한 보육시설, 학교 및 요양시설 등에서는 특별히 예방 및 환자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학원 등 기관 내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증상 발생일 후 5일이 지나고, 해열제 없이 열이 떨어진 후 48시간이 지난 때까지는 등원 및 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월급 십시일반’ 김장 나눔

광주시·KT&G 전남본부

광주시와 KT&G 전남본부는 지난 2일 '2017 빛고를 사랑나눔 김장대전'을 남구 김치타운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KT&G 임직원과 대학생 봉사단 '상상발전단'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150여명이 참여했다.

자원봉사자들이 담긴 6t의 김치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 광주시 5개 자치구와 전남 지역 14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본 행사에 소요된 예산 전액은 KT&G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성금인 상상펀드 3200만원을 활용해 운영됐다.

상상펀드 기금은 임직원이 매월 급여 중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기업에서도 같은 금액을 1대 1로 매칭 하는 방법으로 출연됐다.



광주시와 KT&G 전남본부는 지난 2일 '2017 빛고를 사랑나눔 김장대전'에서 담긴 김치 6t을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다.

기금은 장학금 조성 및 재해구호성금, 청소년 보호시설 지원 등에 쓰인다.

이승우 KT&G 전남본부장은 "아직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기업으로서 나눔

을 실천하고 임직원의 사회봉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선배 직장인들의 알짜 조언

시장가정양립본부 콘서트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경력단절, 취업준비 여성의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취업 후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지난 1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생생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로일하기센터 구직자 채용기관에서 추천한 직종별 전문가 멘토 10명과 새로일하기센터 구직등록자 멘티 100명 등 110명이 참가해 직장생활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직종별 멘토 1명당 멘티 10명으로 진행된 그룹 멘토링에서는 ▲그룹별 멘토자의 기관 소개, 채용 우수사례 소개 ▲직장 적응, 직장 내 대인관계, 직장예절,

직장업무능력 등 궁금사항에 대한 멘토링 ▲그룹별 멘티 중 소감발표 등이 진행됐다.

또 팝페라그룹 빅맨서여즈, 샌드야 디스트 등이 경력단절 및 취업준비 여성과 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힐링공감 콘서트를 펼쳤다.

김예리 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경력단절여성고 미취업여성들의 취업전략을 수립하고 직장생활 이해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멘토-멘티가 꾸준히 만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 청춘산타 100명, 어린이 선물 배달

광주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는 지난 2일 오전 광주시청 행복나눔실에서 빛고을청년봉사단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쾌한 당산! 오늘은 청춘산타'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 100여명이 연말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물을 받을 아동들은 빛고을청년봉사단의 교육봉사자 배치를 희망했던 지역아동센터의 추천을 받아 63명을 선정했다.

발대식 후 산타학교에서 진행된 크리스마스 캐롤과 율동을 익힌 후 아이들 가정을 방문하여 율동과 함께 선물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빛고를 청년봉사단은 지난 2007년 구성돼 11년째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년 800여명이 연인원 4600여명이 참여해 30여개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시설기관 87곳을 비롯한 지역사회 곳곳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대인시장 상인들, 포항 이재민에 김장 전달

광주 대인시장 상인들이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이재민들에게 김치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대인시장에서 '지금은 행복한 시간'이라는 재수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갑순 씨를 비롯한 9명의 상인들은 3일 이재민 대피소인 포항시 양덕한마음체육관을 찾아 사랑의 김장김치 80박스(박스당 20kg)를 전달했다.

이어 매서운 추위와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김치나눔은 최근 대인시장

방문한 윤장현 광주시장과 만난 대인시장 상인들이 지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포항 이재민들에게 광주김치로 조금이나마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면서 추진됐다.

이에 윤 시장은 김치만 보내는 것보다는 직접 현장을 찾아 마음을 전하는 것을 제안, 포항 방문이 이뤄졌다.

광주시는 포항을 처음 방문하는 대인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고자 대피소 현장까지 안내를 맡았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지난 1일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개최한 '생생 토크콘서트'에 참가한 멘토·멘티 등 110명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제공>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

부동산 투자 ! 최 선 규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오천경매 H. 010-3605-5000